

文의 솟막새瓦 그리고 蓮花文의 암막새瓦가 있으며 大部分은 高麗瓦이나 個中에는 平瓦가운데 古式의 것도 發見되었다.

여기에서 『大寺』라 銘記된 것은 現在도 이 近方의 佛跡을 가르켜 『한절』이라 불리워 내려오는 것과 一致하며 『勿也』는 『物野』의 同音異字地名으로 볼 수 있는 發掘地에 흐르는 河川 건너편 洞里名이 『勿谷』(말애골)으로 傳하는 것을 보아도 一致한다.

註

① 本誌 第三卷 第十二號(通卷二十九) 十七頁 參照

② 本誌 第六卷 第十二號(通卷六十五) 一頁 參照

③ 本誌 第七卷 第三號(通卷六十八) 一二頁 參照

### 銅製鬼面

洪 思 俊

八月下旬 扶餘邑內 上水道 幹線管을 埋設하기 爲하여 舊校里 現警察署 東北 五〇m이며 邑에서 구드래로 通하는 道路右側 第三電柱地點에서 地下 一·五m를 人夫가 掘下하는 途中 方形礎下에서 이번 紹介하려는 銅製鬼面이 出土된 것이다. 일찌기 日政時 警察署東部地帶를 整地하는 데서 百濟瓦當이 出土되어 當時 많은 收獲이 있었고 따라서 塔中心礎(扶博所藏)가 發見됨에서 百濟寺址로 推定한 地帶였던 바 今 番 意外에 稀貴한 銅製鬼面이 同地域에서 出土됨은 古建築研究에 一助가 되리라 고 믿어 아래에 紹介한다.

銅製鬼面이 出土한 上水道幹線管을 埋設하기 爲한 工事地는 一五m 깊이에 百濟破瓦가 多量으로 積滯되어서 掘鑿에도 困難을 보았다는 것이며 鬼面下는 原土가 나오더라는 人夫談인데 建物이 있다가 없어진 以後 그 寺址가 攪亂되지 않았음을 알겠다.

이 銅製鬼面은 두눈이 시인스런 큰 便이고 眼珠는 本是 없는 듯 透孔이 되었고 鼻部는 比較的 平平하며 左右로 퍼져 있다. 머리에는 左右로 頭髮이 두가닥 相對的으로 늘어뜨리어 있고 頰骨部에는 隆起된 筋肉이

으로 접어져 있다.

頭上幅 二〇·四cm 下顎幅 一八·三cm 面長 二二·二cm 內曲 〇·八cm

鬼面製作은 表裏型이 있어서 鑄造하였는데 表面은 細部線을 내었으나裏型은 頭髮, 眉部, 鼻部, 口部 등의 굵은 陰刻만이 있다. 鑄銅의 厚는 四—五mm이다.

이 鬼面을 보아 百濟當時 사래木面의 長廣을 짐작하게 되며 혀를 前齒間에 突出시키어서 無聲大笑를 表現한 感이 있다고 보겠다. 土製鬼面으로는 이미 窺岩里出土文樣博에서 볼 수 있었으나 金屬鬼面은 扶餘地方에서는 最初의 出土임을 알겠다.

### 考古美術 卍—ス

◎ 文化財委 第一分委 (八次)

九月 十四日 午前 十一時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 出席委員 金岸基, 李弘植, 金允基, 金斗鍾, 黃壽永, 秦弘燮, 外 文化財課長 姜學藝士,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동굴계 문쳐 있고 口部는 露齒에 혀(舌)를 前齒左側으로 突出시켰음은 鬼面으로 滿面笑顏을 나타낸 것 같다. 이 鬼面에는 兩眉上과 下齒左右에 小孔이 있음을 보아서 隅棟사래 끝木末에 使用한 것 같으며 또한 木末에 찌우기 爲해서 안쪽